

로마서 14장은 바울이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14:1)

난제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경우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주 한정되거나, 좁은 견해를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14:2)

오늘날 어떤 종교단체는 채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식의 요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고, 구약 성경에서 새우나 꽃게나 돌고기나 다른 금지된 정결치 못한 동물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돌고기나 꽃게를 좋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기들을 먹을만한 강한 믿음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겠습니까? 내가 채식하는 자들에게, '오, 어리석은 사람아, 고기 먹는 일이 무엇이 잘못이나?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하, 당신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소. 당신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 가책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그 일에 가책을 받길 원하고,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14:3)

이런 문제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해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게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자들을 볼 때에, 나는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볼 때에도 동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고기를 먹기를 원치 않는다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나는 말합니다. 나보다 좁은 마음으로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괴롭지 않다면, 나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마음에 가책도 없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제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14:4상)

나를 판단하는 당신은 누군가요?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종이려면, 당신이 나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요, 그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신은 나의 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썼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14:4하)

내가 볼 때에 분명히 그들이 넘어지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조만간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인 것입니다.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14:5)

어느 날 주님께 경배할까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할까요? 우리 안식일인 토요일에 주님께 경배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른다면, 우리는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요일 날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토요일에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란 영어로 Sunday이기 때문에, Sun God, 해신을 섬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Saturday는 Saturn God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오, 이 날만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두째 번은 모든 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어느 날이던 좋습니다. 나는 어느 날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모든 시간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에게서는 매일 같은 날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일입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14:6-8).

바로 이것이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나는 죽는 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릇이 내게 꿀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14:9-11)

바울은 한 몸인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 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시오, 그분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무릇이 주님 앞에서 꿀게 될 것이며,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은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14:12-13)

우리는 서로 판단을 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랑이 우리의 생활을 통치하도록 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질 만한 일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자유 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위를 보고, 그 형제가 넘어질 만한 일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들이 가책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논쟁도 하지 맙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소금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논쟁을 벌인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듐 클로라이드입니다. 많이 먹는다면, 혈압이 좀 올라 갈 것입니다.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이 가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교정해 보려는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소금을 먹는 것은 죄라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금을 먹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오, 소금을 조금 넣어 먹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금이 담긴 병을 흔들어 그의 삶은 감자 위에 조금 뿌려, '소금 없이 먹으면, 너무 싱겁지요' 라고 말하며, '거기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 보세요!' 라고 하면, 즉 그의 의사를 꺾어 억지로 소금을 뿌려 먹게 할 때, 그는 소금 친 감자를 먹으면서, 말하기를, '오, 이것 맛이 좋군요. 나의 육신은 그것을 좋아 한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감자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금 친 감자를 먹을 때마다 가책을 받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내게 와서 이상한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동정은 하나,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14:14)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시오, 나는 햄을 먹을 수 있고, 돼지 고기도 먹을 수 있소. 이것들은 내게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나에게서는 양심에 가책을 주는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것을 불결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에는 불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아주 해가 되는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구원과 관계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주는 설교를 거듭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네가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들어 갈수 없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죄가 되어 천국에 들어 갈수 없다고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설교 때문에 평생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보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에 관해 도리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몸의 건강을 위한 이유입니다. 나는 담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얼굴에 나의 주먹이 거의 나갈 뻔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의 즐기는 담배로 인하여, 비행기 전체가 담배연기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주 불쾌한 여행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몸의 건강에 관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들의 소년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흔히 행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땅에 떨어진 담배꽂이를 주어서 피우곤 했습니다. 그 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우리 형편에 담배 한 갑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담배를 여유롭게 살 만한 돈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에, 아니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한, 그들이 예수님과 사귀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자랐던 내가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존경했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시가 담배를 피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지, 상상을 해 보시라.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캠벨 물간이란 유명한 성경주석가도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안 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듯이, 담배를 피는 것이 저주 받을 죄라고 믿지 않는 한, 흡연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죄라고 믿으면, 그것은 죄가 되도 맙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것이 불결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흡연을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흡연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이 내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흡연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연기를 냄새 맡기도 싫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그들이 내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저주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몸의 건강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불결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14:15)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보라는 듯이 우리의 강한 믿음의 자유를 자랑하는 일은 정말로 삼가 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자유를 보고 그의 마음이 상한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그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을 나의 기분 때문에 그를 넘어지게 해야 합니까? '예, 나는 고기를 언제든지 내가 먹기를 원하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14:16-17)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참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14:17-20)

나의 자유 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케 할 때에, 그것이 악이 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14:21)

그러하여 내가 나의 마음의 가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는 일에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꺼리도록 하는 일이 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술에 중독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5년 전에 코카콜라 마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내가 가장 나쁜 것을 마셨다면, 그것은 코카콜라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이라 생각될 지 모르나, 이것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마음의 가책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히려 내 평생에 술을 맛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씩 이러한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끊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나 자신이 신앙 양심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하여, '음, 내가 식사할 때, 샴페인이나 포도주 한 잔쯤은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마신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것을 보고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있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끔 가는데, 주일날에 샴페인을 포함한 점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과 사이다나 포도즙을 대신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사과 사이다를 마시는 것을 본다면, 내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손자가 내 옆에 앉아서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중 앞에서 일부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14:22)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정직함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었다”(시 32:1).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의 저주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14:23)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개인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비록 나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전체적인 생각이 13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에서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을 받게 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을 좇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고,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